

한충석 개인전

《관계연습》



소중한 시간, 2022, 광목에 아크릴릭, 60.6x70.7cm

전시제목 : **한충석: 관계연습**

전시기간 : **2022년 6월 8일(수) – 2022년 6월 26일(일)**

전시장소 : **학고재 아트센터**

(서울 종로구 삼청로 48-4)

출 품 작 : **회화 25점**

○담 당 우정우 wcw@hakgojae.com
 유지연 jyeon@hakgojae.com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20608-20220626_한충석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2년 6월 8일(수)부터 6월 26일(일)까지 **한충석**(b. 1981, 부산) 개인전 《관계연습》을 연다. 작가가 학고재에서 선보이는 첫 개인전으로, 근작 회화 25점을 만나볼 수 있다. 한충석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주제는 '관계성'이다. 화면 속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눈 흘김'의 제스처는 동시대 개인이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눈치 보기 및 방어 심리를 상징한다. 날카롭고도 가느다란 눈이 소통의 부재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조금 가까이 들여다보면 섬세하고 반짝이는 눈동자가 눈에 띈다.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소통의 메시지와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작가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모습이다.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2. 전시 주제

한충석의 '관계 연습' - 반짝이는 눈동자에 담은 희망의 메시지

한충석의 작품에는 인물과 의인화된 동물이 꾸준히 등장한다. 화면의 주인공은 흘겨보듯 가느다란 눈으로 정면을 응시한다. 날카로운 눈매와는 대조적으로, 그 속의 눈동자가 찬란하게 반짝인다.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풀 죽은 아이의 속내를 투영하는 것 같다. 둘 이상의 대상이 만나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관계에는 늘 연습이 필요하다. 이번 전시의 서문을 쓴 김윤섭 소장은 한충석의 그림이 "인간의 관계에 의한 방어본능을 작업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했다. 화면 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세상을 향한 소통의 메시지"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관계에 대한 고민의 기회 마련하는 전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례 없는 팬데믹 상황을 겪어내면서, 우리의 일상 또한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이후 여러 사회적 활동들이 제한되면서 물리적인 만남이 대폭 줄었다. 개인의 삶과 가족 단위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한편,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도 더 많아졌다. 조심스러운 태도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학고재 아트센터는 한충석의 작품 속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근작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희망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다.

소외와 고독의 상징이었던 올빼미¹의 도상은 근작 <소중한 시간>(2022)의 강아지와 <더 걸 - 서툰 고백>(2022)의 소녀 머리 위에 등지를 튼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한편 <아울 킹>(2022)과 <더 캣 - 하이>(2022), <힐링 - 킹 캣>(2022) 등에는 빛나는 왕관이 등장한다. 희망과 소통의 상징으로서 여러 주인공들의 머리 위를 넘나든다. 이들은 고립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관계의 일원이 됨으로써 스스로의 세계를 넓혀 나간다. 이는 한충석의 작가이자 가장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투영한 표현이기도 하다.

3. 작품 소개



<아울 킹>

2022

광목에 아크릴릭

34.8x27.3cm

한충석은 다양한 인물 및 의인화된 동물들이 등장하는 동화적 장면을 그린다. 광목 위에 여러 번 덧칠해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 회화다. 화면에 자주 보이는 흰 올빼미는 작가 자신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북극권에 서식하는 흰 올빼미는 군집활동을 하는 다른 새들과 달리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주로 밤에 깨어나는 부엉이 과의 다른 종들과 달리 낮에 활동한다는 점도 특별하다.

작가는 자신이 그린 흰 올빼미를 '흰 부엉이'라고 부른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징적 대상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흰 올빼미를 그리면서 흰 부엉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군중심리 속에서 고슴도치 딜레마를 드러내는 각 개인의 심상 혹은 자아를 대변하기 위해 상징적 의미로서의 캐릭터가 필요해서였다"고 말한다.



<피에로 보이>

2022

광목에 아크릴릭

53x45.5cm

재미있는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피에로는 정작 자신의 감정은 짙은 분장 속에 감추고 있다. 이 모습은 사회적인 관계 이면의 고독을 투영한다. 사회라는 큰 무대에 감정 표현을 못한 채 괜찮은 척 연기하는 모습이다. 감정이 없는 듯한 표정과 눈물 문양의 분장이 관계의 어려움을 상징한다.

¹ 작가는 자신이 그린 흰 올빼미를 '흰 부엉이'라고 부른다. 올빼미과 새 중 '흰 부엉이'라는 종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걸 - 서툰 고백〉

2022

광목에 아크릴릭

72.7x60.6cm

작은 '흰 부엉이'가 소녀의 머리 위에 살포시 올라가 있다. 작가의 삶에서 딸의 존재가 중요해짐이 드러나는 화면이다. '흰 부엉이'는 소심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뒷짐을 지고 우리를 지긋이 바라본다. 그 모습이 편안하게까지 느껴진다. '흰 부엉이' 역시 눈치는 보고 있지만 폭신한 머리말에 등지를 틀고 한결 긴장이 풀린 모습이다. 가족의 탄생은 한충석의 작품세계를 크게 뒤흔들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부모로서의 역할과 소통은 작가에게도 처음이다. 부엉이는 딸의 존재와 성장으로 사랑을 알게 되고, 한층 성장하였다. 이 두 캐릭터는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보여준다.



〈파이어 캣〉

2022

광목에 아크릴릭

45.5x53cm

〈파이어 캣〉은 기존에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한 방어기제와 관계적 어려움이 아닌 '열의'를 보여준다. 진한 자줏빛 배경 위 고양이는 날렵한 눈매와 손 위의 불꽃으로 강렬히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주먹을 불끈 쥐고 고양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관계 형성과 발전이 힘들 때, 좌절하기보다 딛고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4. 작가 소개

한충석은 1981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신라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부산대학교 서양화과 석사 과정을 졸업한 뒤 부산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2008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유중아트센터(서울), 갤러리 우(부산), J.P 아트센터(대만)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키아프, 아트부산, 아트 타이페이, 상하이 아트페어 등 국내외 대규모 아트페어에 참여해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서울), 부산지방 법원 서부 지원(부산)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전시 서문

‘관계의 여백’으로 소통을 그리다

김윤섭 | 아이프아트매니지먼트 대표, 미술사 박사

관계(關係)는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관련을 맺는 것 혹은 맺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태어나는 순간 관계가 형성된다. 때문에 관계의 첫 출발선은 가족일 수밖에 없다. 관계가 형성되려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관계의 숙성시간인 셈이다. 그래서 관계도 연습이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운 필연적 숙명관계인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충석 그림의 뿌리와 줄기는 관계설정의 소명(疏明) 과정이다.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 것. 그리고 질투하지 말 것. 사랑하면 곁에 머물 것이고, 아니면 떠나는 것이 사람의 인연이다. 그러니 많은 것에 연연하지 마라. 또한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잊지 말고 자신을 아낄 것!” 영국의 유명 패션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1941~)의 말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관계는 어쩌면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이어가는 중 일수도, 이미 끝나버린 관계일 수도’ 있다. 혹시 관계맺음이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

한충석은 왜 그토록 누군가와와의 관계설정 그리고 소통방식에 대한 화두에 집착하는 것일까? 한 작가 그림은 한마디로 ‘인간의 관계에 의한 방어본능을 작업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여러 부류의 인간상, 캐릭터화된 올빼미, 개와 고양이 등이 주인공으로 나서지만, 그 이면에선 ‘세상을 향한 소통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 그가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제법 오래전이다. 2007년 부산지역의 미술계에 새로운 의식을 불어넣었던 대안공간 반디 기획전 [가면 뒤의 가면-동시대 젊은 작가 얼굴]전에 초대된 것이 계기였다. 미술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이 전시를 계기로 부산 프랑스문화원 전시실 초대로 [자기계몽](2008.5.26~6.28)전을 갖는다.

“나의 작업모토는 ‘정체성 확인’이다. 스스로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확인으로 스스로의 통합된 관념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존재함을 확인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성향으로 나를 가꾸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시대는 타성이 정해놓은 정리된 질서(법)가 있다. 그 중 한 개체인 난 내가 정해놓은 가치관, 습관 등으로 바르게 산다고 하여도 그것이 그들의 질서에 정당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난 나의 얼굴을 그린다. 표정을 그리고 때론 눈치를 본다. 그 표정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그 이유에 대한 느낌을 최대한 이미지만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 절대적 가치는 인정받길 원한다.”

2008년 [자기계몽] 개인전에 썼던 작가노트가 결국 15년의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어졌다. 정체성에 대한 확인, 그 정체성으로 추구해온 절대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그려낸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그림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작업엔 여백이 많다. 채워도, 가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난 알고 있기에 채우지 않는다.”고 했듯, 최근 작품에선 어떠한 깊은 사유과정이나 대립관계에서의 흔들림을 즐길 수 있을만한 여유로움까지 풍긴다.

한충석 그림을 읽어내는 키워드를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관계, 눈치, 자존감, 고독, 고슴도치딜레마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중에 ‘고슴도치 딜레마’는 한충석 스타일의 ‘방어기제’를 표현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삶이 지속되는 한 다양한 관계맺음을 피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선 상대방에 따라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상하관계거나, 동등한 관계 등에 맞는 역할극을 통해 자존감을 획득하게 되겠지만, ‘군중 속의 고독’ 역시 숙명적으로 안고 살아가야 한다.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 때문이다.

고슴도치 딜레마(Hedgehog's Dilemma 혹은 Porcupine's dilemma)는 ‘친밀감이나 애착에 대한 욕구와 독립성 및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 상태’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이다. “넌 내게 상처주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야?”라고 묻듯,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는 마지막 저작인 《부록과 추가(Parerga und Paralipomena)》에서 우화적 이야기에 빗대어 ‘행복해지는 비결’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서로의 가시로 인해 ‘일정 간격 이상으로 가까워질 수는 없다’는 고슴도치들의 숙명적 관계설정은 한충석 그림의 매우 중요한 모티브인 셈이다.

실제로 작품제목으로도 사용했다. 2011년 작품 <고슴도치 딜레마>(112.1×145.5cm)는 비둘기 무리 속 한 가운데에 흰색 올빼미가 등장한다. 얼핏 무한한 고독의 슬픔이 전해오지만, 한편으론 ‘미운오리새끼가 나중에 백조가 되었다’는 해피엔딩 설화(說話)가 연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설정이 2014년 대형작품 <목시>(122.5×600cm)로 이어졌다. 왼쪽을 바라보는 35명의 검은머리 무리 중에 단 한명만이 흰머리를 하고 있어서 유독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화면 우측에 오른쪽을 바라보는 3명의 시선이 결국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하는 작가의 속마음을 짐작케 한다.

“인간 심리를 회화로 표현한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소통’을 이야기 하지만, 정작 소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떠한가를 되묻고 싶다. 스스로 자기방어를 한다거나, 입으로는 소통을 부르짖지만 몸은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소통을 막는 벽은 결국 우리 안에 있다. 인내가 미덕이 되어버린 눈치 보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끝없는 질문으로 자신의 존재함을 확인한다. 결국은 발전할 수 있는 성향으로 가꿔갔으면 하는 바람을 그림에 담고 싶다.”

한충석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순간을 위트로 뿜내며, 동시대의 감성을 은유적 표현으로 기록하는 작가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향은 2016년 석사청구전 [관계연습](갤러리우, 9.21~9.30)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 대표적인 작품이 <그들이 사는 숲>(324.4×97cm)이다. 데면데면한 자작나무숲 흰색

올빼미들을 통해 인간심리를 절묘하게 담아냈다. 너무도 쉽게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소통을 위해 그 무엇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복지부동의 우리 내면적 자화상이다. 현재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올빼미 역시 같은 맥락의 설정이다.

작품의 성향은 점차 변모해나가도 작품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연작의 개념을 보여준다. 줄곧 작업모토로 삼아온 '정체성'과 신념어린 '절대적 가치'의 확인과정이나 다름없다. 가령 최근에 자주 사용하는 제목은 <관계연습>, <치유의 강>, <두려움 없이>, <피에로(Pierrot)> 시리즈 등이다. 반복적으로 같은 제목을 선호하는 것은 '관계의 끈'을 스스로 움아매고자 하는 작가적 의지로도 해석된다. 한 작가는 매순간 '주머니에 품어둔 송곳'처럼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한다. 한충석의 그림은 매 순간의 적당한 긴장감이 얼마나 삶의 훌륭한 자양제가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관계의 시작은 물음표겠지만, 마지막은 느낌표일 것이다. 다양한 방식의 사랑에 대한 감정과 은유의 흔적들이 중첩되어 관계의 결이 완성된다. 역겹의 시간이 반복되는 생의 주기에도 나이트라는 쉼의 여백이 있다. 우리의 관계에도 그런 적당한 여백이 필요하다. 굳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비유하지 않아도 좋다. 한충석의 그림은 성숙된 교감과 소통을 위해선 '관계적 여백'이 행복한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혹은 상대에게 고백하고 존중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한충석의 가느다랗게 짜진 눈매가 이제는 불안정한 눈치 보기가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한 잠깐의 휴식처럼도 느껴진다. 서로에게로 향하는 믿음의 징표를 만날 수도 있도록 유도해준다.

관계 Relation

권아름 | 페이토 갤러리 디렉터

자작나무 숲에 그렁그렁한 눈을 하고 어느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부엉이, 가느다란 실눈을 뜨고 서 있는 큰 얼굴의 소녀, 피에로 분장을 하고 있는 소년, 여기 누구나 알 만한 친숙한 작품이 있다. 바로 작가 한충석의 작품이다.

1981년 부산에서 출생한 작가는 신라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공부하였으며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였고 근래에는 서울, 일본, 대만 등 그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동화 속 등장하는 캐릭터와 같은 이미지를 작품에 담고 그것을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관계, 인간의 내면 그리고 소통 등의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한다.

작업 초기 작가는 자신의 얼굴을 그리며 스스로 정체 확인 작업인 자기 계몽 시리즈를 선보였다. 단색의 바탕 위에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가 본인의 초상, 또는 얼굴과 식물을 함께 표현한 그림에서 작가는 스스로에 관한 질문과 확인, 그리고 자신이 세운 기준이 상대적이고 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 나아가서는 인간관계에 의한 방어본능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고슴도치 딜레마'를 언급한다. '고슴도치 딜레마'란 고슴도치들이 추운 날씨에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 모여 있지만 날카로운 가시로 상처 입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딜레마를 말하는 심리학 용어로 관계에 있어 친밀함과 동시에 거리감의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 심리 상태를 이야기한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자신의 초상을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 친밀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말하였던 작가는 이후 흰 부엉이 그림으로 관계와 소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혜의 상징이기도 한 부엉이는 큰 눈이 특징으로 야행성이며 뛰어난 시력과 평형감각으로 밤에 주로 활동하는 새이다. 툰드라 지방에 서식하는 흰 부엉이는 일반적인 갈색 깃털을 가진 부엉이와는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다. 주로 낮에 활동하고 마을로 내려와 주변을 관찰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에서 인간과 닮은 점을 발견한 작가는 흰 부엉이를 표상으로 현대사회 인간의 모습을 대변한다.

친밀하기를 원하지만 적당한 거리두기를 두려는 모순적인 인간 심리를 작가는 그만의 톤으로 전한다. 아크릴이라는 서양의 안료를 사용하면서도 광목천을 바탕으로 물감을 여러 번 입혀 자연스럽게 번지게 하는 담채의 덧입힘 효과를 통해 서양화이지만 동양화 같은 작가만의 색감과 질감을 선사하고 있다. 치유의 나무 자작나무 위에 앉아 있는 부엉이, 별이 가득한 환상 속 배경 그리고 그 안에 인물들, 긴 머리카락을 흔들리며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소녀 등 그림에는 동화 속 모습이 가득하다. 그러나 환상적이고 고요한 배경 속 인물은 슬퍼 보이거나 어딘가 상처가 있어 보이기도 하며 모호하다.

작업 속 등장하는 실눈을 뜬 긴 머리의 소녀는 나라 요시토모의 '소녀'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작가의 작업은 나라의 소녀와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완연하게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나라의 소녀는 귀여운 모습이지만 무언가 불만이 있는 표정으로 순진함과 반항심이 동시에 깃든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방어기제와 아이들의 마음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충석의 작품 속 아이들은 화도 내지 않고 웃지도 않으며 철저히 감정을 숨긴 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어 보인다. 다소 소심해 보이며 주위를 살피는 듯한 그들의 모습에서 고독함, 외로움보다는 곧 미소 지을 것 같은 치유와 행복이 보인다. 한충석의 그림 속 인물들은 그림 속 상황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고 상상하게 한다.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은

외로움이 아닌 치유의 시간으로, 작품 속 인물과 동물들은 외로움을 넘어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로 향할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더 나아갈 미래를 위해 잠시 사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작가는 현대인을 대변하여 표현한 작품 속 인물, 동물들에 목도리를 해주고, 붓대를 감아주며, 왕관을 씌워주고, 친구도 함께 만들어주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응원한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의 친밀함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누군가의 거리감이 서운하기도 하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포커페이스로 살아가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혼자 살 수는 없다.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끊임없는 관계에 대한 고민의 표현인 한충석의 작품, 우리는 그림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과 동물을 통해서 고독한 현대인이 자신만의 휴식처를 찾아 치유와 행복을 느끼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오늘 작품과 함께 나의 주변 여러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길 기대한다.

7. 작가 약력

한충석

- 1981 부산 출생
- 2008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과 학사 졸업
- 2017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졸업
- 부산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 2022 관계연습, 학고재 아트센터, 서울**
- 2021 기억될 너의 시절, 갤러리 우, 부산
냉정과 열정 사이, J.P 아트센터, 가오슝, 대만
- 2020 요새 이야기, 갤러리 우, 부산
- 2019 찬란한 고독, 유중아트센터, 서울
블랙_두려움 없이, 갤러리 우, 부산
- 2018 마음, 갤러리 아티튜드, 부산
그들이 사는 숲, 키다리 갤러리, 대구
- 2017 휴식, 갤러리 사노, 교토, 일본
찰나의 시대 그리고 베테랑, 갤러리 우, 부산
- 2016 관계연습, 갤러리 우, 부산
나의 별, 나의 숲 속에서, 갤러리 아침, 서울
힐링, 키다리 갤러리, 대구

- 2015 보고싶다..., 갤러리 우, 부산
 2014 묵시(默示), 미부아트센터, 부산
 2013 그들이 사는 숲, 에이프릴 브리즈 갤러리, 부산
 2011 고립과 소통 사이 (고슴도치 딜레마), 아트갤러리 유, 부산
 2009 반지하와 젊은 얼굴들, 대안공간 반지하, 대전
 자기계몽, 김재선 갤러리, 부산
 2008 자기계몽, 부산프랑스문화원, 부산

주요 단체전

- 2022 페어리 테일스, 신세계 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드림캐스트, 볼레리 갤러리,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선이 만든 세상, 하나 갤러리, 수원
- 2021 솔로쇼, 신세계 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거닐의 기록, 미광화랑, 부산
 겨울을 건너는 우리, 디오티미술관, 부산
 선이 만든 세상, 하나 갤러리, 수원
- 2020 환영증폭장치, 523쿤스트독, 부산
 혁신 스페셜, 키다리 갤러리, 대구
 관계, 하나 갤러리, 수원
 부산대학교 동문전,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따스한 바람, 한새 갤러리, 부산
 미술, 그 이름으로 하나되는...,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 2019 7189 므두셀라, 금정문화회관, 부산
 행복, 메르씨엘비스 갤러리, 부산
 언제나 영화처럼, 판 갤러리, 부산
 달콤한 휴식, 롯데 갤러리 광복, 부산
 부산대학교 동문전, 아트소향, 부산
- 2018 프린트 & 드로잉, 갤러리 우, 부산
 치유, 갤러리 마레, 부산
 애프터 비. 전시, 키다리 갤러리, 대구
 아트페어 플로어 플랜, 갤러리 우, 부산
 그들이 사는 숲, 갤러리 카페 그리다, 부산
 아트 x 패션, 키다리 갤러리, 대구
- 2017 청년작가 초대전,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예일 갤러리, 부산
 봉산미술제 특별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 아트 랜드, 키다리 갤러리, 대구
2인전: 박진성, 한충석, 갤러리 아인, 부산
몽롱한 탐닉, 아트소향, 부산
유기동물 기금마련전시, 더 펫텔, 부산
스페셜 1326, BNK 경남은행 갤러리, 창원
- 2016 오늘의 우리, 아트숲 갤러리, 부산
반려동물과 사랑 나누는 크리스마스, 키다리 갤러리, 대구
재장전, 키다리 갤러리, 대구
팔공팔오, 창동예술촌 스페이스 1326, 마산
반가워요 동물친구들, GS칼텍스 예울마루, 여수
어느 멋진 방랑 세계, 레지나 갤러리, 서울
여름나기, 미부아트센터, 부산
응답하라 반디 2016,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8085 드로잉, 갤러리 아인, 부산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맥화랑, 부산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귀 벚 - 미술,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새하얀 진실, 이연주 갤러리, 부산
그들이 사는 숲, 갤러리 카페 그리다, 부산
일상의 의미, 에스플러스 갤러리, 부산; 서울
- 2015 어게인 2015, 키다리 갤러리, 대구
아트 인 더 파크, 부산시민공원 미로전시실, 부산
아이즈: 눈의 이야기, 갤러리 블루스톤, 서울
인간의 초상 01, 아트스페이스 누리봄, 부산
물뚝, BNK 부산은행 갤러리, 부산
팔공팔오, 유진화랑, 부산
개인의 취향, 갤러리 메르씨엘 비스, 부산
특급소나기,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포인트 오브 뷰, 갤러리 우, 부산
새터민과 함께하는 나눔, 해오름 갤러리, 부산
- 2014 벚, 갤러리 카페 그리다, 부산
미술관 속 동물원, 키다리 갤러리, 대구
봄, 보다, 재미 갤러리, 서울
작은 그림, 갤러리 이듬, 부산
- 2013 뉴 메시지, 갤러리 나무, 부산

- 옐로잉, 미부아트센터, 부산
그 숲, 갤러리 카페 그리다, 부산
청년작가 기획전, 평화화랑, 서울
얼굴: 바라봄의 기술, 갤러리 움, 부산
5월의 꽃향기, 경민현대미술관, 의정부
개관전, 에이프릴 브리즈 갤러리, 부산
너에게 가다, 갤러리 도도, 부산
- 2012 제1기 작가공모선정전, 갤러리 써포먼트, 서울
자기고백, 봄 갤러리, 서울
동화적 표상과 상상들, 갤러리 움, 부산
유나이티드 아트페스티벌, 유나이티드 갤러리, 서울
부영이, 갤러리 카페 그리다, 부산
하늘이 내린 빗물, 공룡을 깨우다,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고성
소통의 묘사, 센텀아트스페이스, 부산
- 2011 파운드 워크, 파니노테카, 서울
러브, 센텀 갤러리, 부산
어김없는 안녕, 불투명한 안녕, 대안공간 반디, 부산
단결하라 동지여, 바다 갤러리, 부산
오월의 도시 이야기, 센텀아트스페이스, 부산
젊은 작가 주목전, 갤러리 봄, 부산
반디의 여명 - 반디구출작전II, 대안공간 반디, 부산
- 2010 외롭고 웃긴 당신, 작은공간 이소, 대구
봄여름가을겨울, 한가족 갤러리, 부산
각개전투, 문화매개공간 씬, 부산
삼각관계, 아트갤러리 유, 부산
한국·인도 현대회화 교류전, 경성대학교 미술관, 부산
라이프 & 서바이벌 이미지, 금호 갤러리, 광주
오늘의 나..., 문화매개공간 씬, 부산
- 2009 전혜영 갤러리 개관전, 전혜영 갤러리, 부산
BIEAF 에코그랑프리 도쿄, 주일한국문화원, 도쿄
뉴 아이즈, 하버 갤러리, 부산
제7회 부산국제환경예술제, 벅스코, 부산
보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아트갤러리 유, 부산
매운맛 좀 볼래!, 맥화랑, 부산

-
- 꿈을 선물하다, 조부경 갤러리, 부산
 - 2008 제4회 부산꽃마을국제자연미술제, 구덕문화공원 내 전시실, 부산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미술은 지금이다, 부산문화회관, 부산
청년작가 100인 선정작가지원전, 갤러리 신상, 서울
판타지 오브 더 시티, 아트센터 알트, 대전
눈을 크게 떠라!, 아트갤러리 유, 부산
반디구출작전, 대안공간 반디, 부산
 - 2007 새빨간 거짓말, 아트스페이스 민들레, 부산
우수신진작가전, 아리엘 갤러리, 부산
바다괴물, 서울아트스페이스, 부산
가면 뒤의 가면, 대안공간 반디, 부산
 - 2006 전시기획그룹<흥> 놀이:터, 플러스 갤러리, 마산
전시기획그룹<흥> 창립전, 금정문화회관, 부산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